

이기는 삶

실행의 중요성

성실한 것은 하늘의 도(道)요 성실해 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다. 그 성실을 얻는 데에는 다섯 덕목이 있다. 첫째 널리 배우는 것(博學), 둘째 자세히 묻는 것(審問), 셋째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慎思), 넷째 분명하게 판별하는 것(明辯), 다섯째 독실하게 행하는 것(篤行). 이 다섯 가지로서 일단 한편의 지식은 얻을 수가 있으나 얻은 것을 실행(篤行)해야 비로소 자기가 터득한 학문이라 할 수가 있다. 중용(中庸)이 강조하는 실행의 중요성이다. 경영컨설턴트 간다 마사노리는 "성공하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하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공하는 것은 간단하다"고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실행은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일이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짝 웰치는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최고경영자의 임무는 구상이 아니라 실행이다. 사업의 가치평가나 과학적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라 모두 그렇듯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모두 빛 좋은 개살

구이다. 기획은 실행의 도구이다. 조직원들이 목표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것이 경영자의 과업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들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냥 실행에 옮기라."고 너무나 단순하게 말한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고 그 전략을 이루기 위한 전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성공의 기술을 배우고자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읽고 강연을 듣지만 그들이 읽고 들은 것은 그냥 성공에 대한 그 사람의 성공담일 뿐이다.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성공은 끈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들의 말처럼 생각하는 것을 바로 실행에 옮긴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 성공한 최고경영자들은 하나같이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과 공유한다. 조직원들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하여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인다. 또한 성공한 최고경영자는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 경영자는 항상 모호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결단을 강요받는다.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조직의 존폐위기를 맞게 되고 어쩔 수 없는 무지바탕 해고로 인원을 감축해야만 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된다. 그로 인한 원망과 자기만 살려한다는 날선 비난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성공한 리더가 남과 다른 것은 실행력이다.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반드시 반대와 비판이 따른다. 그 비판을 감내(堪耐)하면서 조직원들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리더가 해야 할 일이다. 성공하는 리더의 특성을 살펴보니 옛 성현의 가르침인 중용(中庸)의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판(明辯), 독행(篤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최고경영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지금까지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가을이 문을 여는 입추가 지났다. 지치고 피곤한 날 나무 그늘 아래 침터와 같은 요가와 명상으로 시간을 이기자. 꿈과 희망의 종류 중에 가장 큰 희망은 영생의 확신이다. 영생의 확신을 갖게 되면 영생의 피로 변한다. 모든 동작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할 때 비로소 진정한 꿈, 영생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게 진리의 길이 아닐까요?

명상에 적합한 자세 중 금강좌 동작① : 무릎을 꿇고 앉는다. 양손을 포개서 엄지손가락을 모은다. 몸의 중심 골반 속에 척추를 바르게 세우고 어깨 힘을 뺀다. 갈비뼈를 들어올려 가슴을 위로 펴고 턱은 살짝 쇄골 쪽을 향한다. 코로 숨을 크게 들이마시어 아랫배가 볼록 나올 정도로 하고 숨을 내쉬 때에는 가능하고 길게 아랫배가 움푹해지도록 한다. 들이쉬고 내쉬기의 1:2 비율이 어느 정도 숙달되면 들이쉬기, 멈추기, 내쉬기의 순서로 호흡을 한다.

낙타자세 효능: 체장을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 특히 강하게 뒤로 후굴할 때 복부에 강한 힘이 들어간다. 이때 조여 있던 근육이 활짝 열리면서 복부가 편안해진다. 이때 강한 자극이 골반에 전달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의 원활한 흐름이 일어나 내장기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허리의 유연성, 탄력성 길러주어 허리 통증에도 효과적이다. 동작② : 금강좌에서 어깨넓이 간격으로 무릎으로 선다. 동작③ :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발목을 잡고 숨을 마시며 한손을 높이 들고 내쉬며 팔을 뒤로 넘긴다. 어깨는 뒤로 젖히고 배와 가슴을 내밀면서 향문의 팔약근도 꼭 조인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며 마친다. 10초 유지 양쪽 3세트. 동작④ : 한손씩 양쪽 발목을 뒤로 잡고 내쉬며 어깨를 뒤로 젖히고, 배와



가슴을 내민다. 마시면서 돌아오고 내쉬며 마친다. 3. 5회. 주의: 상당한 긴장을 요하는 자세이므로 1회 끝나면 호흡 조정 후 반복한다. 초보자는 능력껏 실시한다.*

천하의 운이 한국에 돌아오니 감로를 내리는 정도령이 소사에 출현하느니라

격암유록 新해설 제11회 鷄龍論 계룡론 天下列邦回運 천하열방회운 權花朝鮮鮮龍地 근화조선계룡지 天縱之聖合德宮 천종지성합덕궁 背弓之間兩白仙 배궁지간양백선 血遺島中四海通 혈유도중사해통 無後裔之何來鄭 무후예지하래정 鄭本天上雲中王 정본천상운중왕 再來今日鄭氏王 재래今日鄭氏왕 不知何姓鄭道令 부지하성정도령 鷄龍石白鄭運王 계룡석백정운왕

終忍之出三年間 종인지출삼년간 不死永生出於十勝 불사영생출어십승 不入死又次運出現 불입사우차운출현 四面如是十勝 사면여시십승 百祖十孫好運矣 백조십손호운의 정씨 조씨가 천년왕국을 건설한다는 정감설을 세상사람들은 모르고 신인만이 아시느니라. 호사다마라고 정도령(5도 72궁)은 옥살이를 면치 못하니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면 백 조상에 한 자손만 사는 악운을 맞게 된다. 잘 참고 3년 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다면 불사영생을 실현할 십승지인(6도 81궁 정도령)이 나오느니라. 다시는 죽음에 들지 않는 다음 운이 출현하느니라. 이와 같이 사면이 방정한 전(田)의 이치로 십승이 나오게 되면 백 조상 가운데 열 자손이 살게 되는 호운을 맞게 되느니라. 南來鄭氏誰可知 남래정씨누가지 弓乙合德真人來 궁을합덕진인래 南渡蛇龍今安在 남도사룡금안재 須從白鳩走青林 수종백구주청림 一鷄四角邦無手 일계사각방무수 鄭趙之變一人鄭矣 정조지변일인정의 無父之子鄭道令 무부지사정도령

정도령이 남쪽 한국 땅에 오실 것을 누가 알겠는가? 천궁 지율이 합덕한 진인이 오심이라. 남쪽 한국으로 건너오신 진사성인은 이제 편안히 계시니라. 모름지기 평화를 상징하는 백구(白鳩)를 따라 청림도사(정도령)를 찾아가야 하리라. 일계사각방무수(一鷄四角邦無手)는 정(鄭)자의 파자이다. 정씨 조씨가 변하여 한 사람의 정씨가 됨이어! (세상의 정씨가 아니고 일자총형 십(十)자가 정씨이다.) 아버지 없는 자식인 정도령이다. 즉 천신이 하강하신 분이라는 말이 다(사인불인천신강=似人不少人神降). 天地合運出柿木 천지합운출시목 弓乙兩白十勝出 궁을양백십승출 十八姓人鄭真人 십팔성인정진인 天地震動花朝夕 천지진동화조석 江山熱湯鬼不知 강산열탕귀부지 鷄龍石白鄭道令 계룡석백정도령 牛天馬伯時事知美哉 우천마백시사지미계 此運神明界 차운신명계 長安大道正道令 장안대도정도령 投鞭四海滅魔田 투편사해멸마전 四海太平樂樂哉 사해태평락락재 천지가 합덕하여 감나무(감나무)의 사람이 나오게 되니 곧 궁을양백 십승이 나오며 이는 목(木)의 성품을 지닌 정도령이요 진인이다. 소사에서 천지공사하시는 정도령이 아침저녁으로 금꿈(금빛광명=이슬성신)을 꾸어오니 천지가 진동하고 강산이 그 은혜로 뜨겁게 끓어올라도 마귀는 모르니라. 지천태평(우천마백牛天馬伯) 지상 선국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니 마귀를 이기신 백십승인(정도령)이 오신 그 때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진저.

새칼럼 Immortal Valley(불사의 계곡)로 오세요!



저는 승리신문에 새롭게 인사드리는 새내기 칼럼 「Immortal Valley」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6장」에는 Immortal Valley(불사의 계곡)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谷神不死是謂玄牝(곡신불사시위현빈) 玄牝之門是謂天地根(현빈지문은천지근) 綿綿若存用之不勤(면면약존용지불근) 의식 넘어 그윽하게 가장 깊은 골, 가장 낮은 내면 속에 보이지 않게 머물러 있는 신령(神靈)한 도(道)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 이것은 현묘(玄妙)하게 깊은 어둠의 내궁(內宮)으로 현빈(玄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 현빈이라는 껌껌한 동혈(洞穴)에는 문이 나 있는데, 이것은 천지(의식)가 생겨나오는 뿌리다. 이것에서 나오는 의식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미세하게 흐르는데, 마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같

승리제단에 계신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제단'. ① 영원무궁한 생명력, 절대적 지혜와 권능 그리고 이긴자 구세주를 상징하는 영생교/하나님/승리제단/이라는 3개의 절대적 핵심 키워드(Keyword)로 조합되어 만백성들을 불사영생의 구세주 메시아로 완성시키는 삼신산의 불로초 불사약인 감로이슬을 무한 생산하는 성령공작소(Holy-Spirit Venture)다. ② '나' 라는 자존심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심령에서 불사영생을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의 극기승자, 메시아 구세주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꿈의 반도체(이긴자 하나님의 성령, 감로해인, 이슬성신, 영생의 만나)를 인류에게 무한 공급하는 Immortal Valley(구원의 방주, 에덴동산, 무릉도원, 극락정토)다. 세상의 그 어떤 이론이나 주장, 교리나 학설도 저희 칼럼에 유숙 가능합니다. 장담하건대 21일 동안만 Immortal Valley에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안식하시다 보면 온전한 진리, 영생불멸의 신선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Welcome to the Immortal Valley!*

이 중천의 운으로 눈부시게 밝은 하나님의 신의 세계가 펼쳐지도록. 정도령은 영원한 평안을 여시는 영생대도의 주인공이시요, 전(田)의 이치로 오신 십승인으로 사해에 진리의 채찍을 휘둘러 마귀를 말하니 사해가 태평하고 즐거움이 넘치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율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9261-9974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53)474-7900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43)233-6146 충주제단 : 010-9980-5805橫濱祭壇 : (045)261-6338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久留米祭壇 : (0942)21-4669 岐阜祭壇 : (0584)32-1350 大阪祭壇 : (06)6451-3914 神奈川祭壇 : (045)451-3150 Philadelphia : (215)722-2902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6142-1738136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